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담긴 예배의 의미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며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예배에 쓰이는 히브리어 ‘티쉬타하바’와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경배하다, 절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며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개업 예배, 돌 예배, 칠순 예배, 목사 안수 예배, 은퇴 찬화 예배, 졸업 예배 등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에 붙은 ‘수식어’가 강조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거나 축하를 위한 의식 중 한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일은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죄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뜹니다(레 1:6).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레 1:9). 내장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냄새가 고약한 부위입니다. 내장과 제물을 깨끗이 씻듯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낱알이 드러내고, 깨끗이 씻음받으십시오. 가죽을 벗겨 내듯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감추고 가리기 위해 썼던 체면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 내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며 온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물을 잡고 각을 뜨며 나의 전 존재가 조각조각 찢기고 해체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죽음으로
예배합니까?

- 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합니까?
- ② 내 전 존재를 드러내고, 찢고 해체하며 예배드립니다?